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제585호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수강신청, 넌 대체 뭐냐!

한성대  
신문사

한성대신문사

진정한 대학생들의 첫걸음, 수강신청 기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새내기들의 수강신청은 2월 24일이다. 본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등장하는 'QUICK SERVICE'에서 종합정보 시스템을 클릭하고 로그인 후 나타나는 왼쪽 목차 첫 번째 '교무'의 '수강신청'을 누르면 수강신청 페이지가 등장한다. 1학년 1학기에는 6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 이후 정정 기간을 활용한다면 정정도 가능하니 큰 걱정은 하지 말자. 본교가 수강신청을 선착순 인원 제한으로 설정해 적절한 규모에서 마감하는 이유는 특정 교과목에 대한 편중을 막기 위함이다.

1학년 시간표는 자기 성찰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열린 세계시민을 육성하려는 본교의 교양 교육 목표 아래에서 '교양필수'가 필수로 제시된다. '사고와 표현'과 '영어커뮤니케이션'은 1, 2학기 모두 수강하게 되며 '디자인씽킹'과 '문제해결을 위한 코딩 첫 걸음'은 각각 한 학기씩 수강한다. 학기당 6학점이 시간표에 배정된 채로 수강신청을 시작하는 것이다. 상술한 교양필수들은 같은 단과대학에 소속된 학생끼리 수강하도록 설정돼 임의로 교과목의 수강 요일과 시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편 '삶과 꿈'과 '글로벌 시민의식 분야' 및 '사회봉사'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직접 진

행해야 한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학기당 1학점으로, 두 학기 모두 수강해야 2학점이 인정된다.

각 분야마다의 역량 함양이 목표인 선택필수교양 교과목도 수강해야 하는데, 해당 교과목은 ▲예술과 체육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정보기술 ▲융합교양의 총 5가지 분야가 존재한다. 교과목당 3학점이 부여돼 있는데, 5개 중 최소 4개 분야에서 총 12학점 이상을 필수 수강해야 한다.

한편, 신입생의 경우 실제 수강신청 시 사전에 선택해놓은 교과목을 비교적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수강신청 장바구니 제도'를 이

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시행기간이 학년이 생성되는 시기보다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안승주(학사지원팀) 팀원은 "학번이 생성돼야 수강신청이 가능한데, 장바구니 시행 기간에는 1학년의 학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양필수부터 장바구니 제도까지 처음 만나는 것 투성이인 새내기들의 수강신청을 지원사격하고자 학보사 기자들이 수강신청 전반에 걸친 꿀팁을 전수한다. 학보사 기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주는 수강신청 성공 비결, 속히 따라오시라.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 수강신청을 처음 접했을 때 감정과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김기현(부장기자)

대학에 진학하니 시간표를 모두 내 손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어요. 동시에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죠. 그럼에도 나름대로 '내가 대학생이 됐구나'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고 지금까지도 헛갈리는 것은 1, 1M 등의 수업 시간 단위예요. 그래서 수강신청 때마다 컴퓨터 화면 한쪽에 '수강신청 안내 및 학업이수 가이드'에 있는 표를 쭉 훑

고 참고해요. 그럼에도 이해가 더디다면 '에브리타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시간표를 구성해요. 애플리케이션에 강의시간을 설정하거나 검색해 삽입하면 해당 강의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트랙제를 시행하는 본교 특성상 전공기초를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어 교양과 전공기초를 배분하는 지점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설정해주는 교양필수는 6학점이고 여기에 수강신청을 직접 해야 하는 교양필수인 삶과 꿈, 글로벌 시민의식 분야 혹은 사회봉사 교과목 중 하나를 신청하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진로가 확실한 새내기라면, 전공기초 1개와 선택필수교양 2개를 듣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선택필수교양과 전공기초 교과목은 개당 3학점인데요. 9학점을 전공기초와 선택필

수교양으로 채우는 거죠. 반면, 1학년 때 저처럼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새내기들은 전공기초를 다양하게 들어보기를 권해요. 이 경우 전공기초 2개와 선택필수교양 1개, 혹은 전공기초만 3개를 듣는 방향이 있어요. 자신의 특성에 맞게 전공기초와 선택필수교양의 강의 개수를 선택해 수강하고, 트랙을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3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정상혁(부장기자)

주로 종합정보시스템의 수업계획서나 학내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강의평에서 정보를 얻는데요. 개인적으로 에브리타임의 강의평보다 수업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읽다 보면 해당 수업이 발표 위주

로 진행되는지, 토론이 많은 수업인지 등을 알 수 있어요. 강의평은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교과목이 내게는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 후순위에요. 그럼에도 덧붙이자면, 강의평은 과목명보다 교수명으로 검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

니다. 강의평은 과목에 대한 내용보다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학년, 다른 과목의 강의평이라도 해당 교수님의 스타일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특히나 삶과 꿈과 글로벌 시민의식 분야

및 사회봉사 교과목은 다른 교양필수와 달리 직접 분반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교수님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향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계획서와 강의평을 적절히 참고해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수업을 선택해 들으면 좋아요.

### 강의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이 궁금해요.



장현진(정기자)

수강신청이 시작되는 정확한 분초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컴퓨터 시간이 맞다', '핸드폰 시간이 맞다' 등 학생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제일 정확한 시간은 '서버시간'이에요. 인터넷 검색창에 서버시간을 검색하면 다양한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저는 최대

한 다양한 사이트를 모두 띄워놔요. 그리고 시간만 보이게 창을 최대한 줄여 화면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수많은 사이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간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해당 사이트에 맞춰 클릭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는 장바구니가 불가해 컴퓨터 화면에 교과목명과 과목코드, 분반명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에 미리 띄워놓는 것이 중요해요. 단축키를 활용해 복사와 붙여넣기를 하는 게 빠르기 때문이죠. 수강신청 창에 들어가서 과목명을 찾기 시작하면 늦어요.

가장 인기가 많은 교과목이나, 꼭 듣고 싶은 교과목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그 순서를 지켜 신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실패할 가능성을 대비해 '폴른 B'를 세워야 함을 잊지 마세요. 미리 생각해놓은 시간표가 다양할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간답니다.

### 누구보다 빠르게 수강신청을 성공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송성욱(정기자)

누군가는 제가 듣고 싶었지만 놓쳤던 교과목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종일 창을 새로고침 했어요. 한두 번은 누군가 포기한 교과목을 짚싸게 신청해 들었

던 적이 있으니 도움이 되는 확실해 보여요. 남들보다 손이 느려 원하는 교과목을 놓친 경험이 많은 제 꿀팁은 수강신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수강신청 사이트에 제공된

'트랙제 수강신청 안내영상'을 반복 시청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클릭 위치나 모양을 미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빠른 클릭을 연습하는 시뮬레이션도 좋은

방법이에요. 인터넷 검색창에 '티켓팅 연습'을 검색하면 다양한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미리 빠르게 클릭하는 것을 익혀놓으면 수강신청 실전에서 덜 긴장할 수 있습니다.

### '울클'에 실패했을 때 해결방안과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 한성대신문사에 질문 보내기

기자사령 임 부편집국장 박희진(인문 1) 면 부편집국장 김지윤(사회과학 2)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겸주간 박선옥 편집국장 한혜정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 학내 노른자 공간을 선점해보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학교로 향한다. 대학에 입학했다는 설렘이 가득 차 두근거리는 상태로 걷다 보니 어느새 학교에 도착했다. 그런데 들뜬 마음도 잠시, 수업을 듣는 강의실만을 옮겨 다니다 보니 식사하는 공간은 어디인지,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등은 알 수가 없다. 드넓은 캠퍼스에서 휴식 공간과 학습 장소 등을 골라내기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잘 알기만 한다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대학에서 아쉽지 않은가. 기자가 2년간의 학교생활을 토대로 새내기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을 목적에 따라 ▲학습 ▲휴게 ▲편의로 구분했다.

**커피 한잔과 공부하고 싶으니까, 학습공간**  
빈백에 몸을 기대고 카페 음료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가능한 공간이 있다. 연구관 지하 2층부터 1층까지의 '상상파크' 중 1층이 바로 그곳이다. 상상파크에서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의 '상상라운지'와 '오픈 스튜디오'다. 상상라운지는 빈백 등이 배치된 공간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열린 장소다. 상상라운지에서 오픈 스튜디오로 이동하는 도중, 카페 '오프'가 눈에 띈다. 오프의 인기 음료는 롱 블랙에 수제 크림과 코코아 파우더를 올린 아인슈페너다. 타르트 종류의 디저트도 수요가 많아, 일찍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오픈 스튜디오는 상상라운지보다 정적인 공간으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해 작품을 제작할 수 있어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기 적합하다.

연구관 1층 입구에서 나와 몇 발짝만 걸어가면 공학관 A동 지하 1층



사진: 정성혁 기자

- 1 상상파크의 상상라운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자다.
- 2 신문사 기자 일동이 상상베이스 세미나실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의 '상상파크 플러스'가 보인다. 상상파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팀 프로젝트나 발표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다. 상상파크에서는 3D프린터와 같은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자재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 상상파크 플러스는 ▲소모임 ▲졸업전시회 ▲졸업발표회 등의 활동에 더욱 적합하다.

시험 기간에 상상파크나 상상파크 플러스의 여석이 없다면, 상상관 지하 2층에 위치한 '상상베이스'로 가보자. 상상베이스는 ▲자유이용석 ▲세미나실 ▲그룹스터디룸 ▲프린트존 ▲휴게공간 등으로 용도에 따라 구분돼 있다. 자유이용석은 음료를 섭취하며 넓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다. 세미나실과 그룹스터디룸은 그룹 활동에 적합한 장소로, 각각에 적절한 최소 이용인원을 충족해 홈페이지에서 미리 '공간 예약'을 진행해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상베이스가 위치한 상상관 2층에는 '팔고당' 카페가 입점해 있다. 갓 조리된 빵이 먹고 싶다면 오전 9시 이후 방문해 보도록 하자. 팔고당에서 '여학생휴게실'을 지나쳐 우촌관과 진리관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향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는 인쇄기가 있고, 강의실 사이에는 책상과



사진: 정성혁 기자

**앉는 것보다 눕는 게 더 편하니까, 휴게공간**  
학습공간에서 공부하다 지친 순간에는 상상관 속 '누워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해 보라. 본교 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상상관 2층의 여학생휴게실과 7층 '학생휴게실'이 존재한다. 여학생휴게실에는 누울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2개의 리클라이너가 자리하고 있으며, 온돌방과 함께 빈백이 존재해 따뜻하게 피곤함을 떨쳐내기에 적합하다. 7층 학생휴게실에는 리클라이너 2대 등이 구비돼 있다.

누워서 쉬지는 못하지만, 앉아서 답소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는 공학관 A동 1층의 휴게실들과 상상빌리지 지하 1층 '학생

의자가 배치된 열린 학습공간이 존재한다.

단한 공간을 선호하는 새내기라면 미래관 학술정보관의 3층 '창의열람실'과 4층 '집중열람실'을 이용해보자. 창의열람실은 스터디카페 형태를 연상시키는 공간이다. 창의열람실 내에서는 대화와 타자 소리가 들리는 문서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들이 좌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집중열람실은 대화를 자제해야 하고 자판 소리가 나거나 마우스 클릭이 빈번한 작업이 금지되고 있다. 학술정보관이 위치한 미래관 지하 1층에는 카페 '그라피'도 있으니 카페인을 충전하기도 적절하다.



4

사진: 정성혁 기자

학 휴게라운지' 등이 제격이다. 해당 장소에서 신발을 벗고 누워 쉴 수는 없지만, 학우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손색이 없다.

**배도 고프고 아플 때도 있으니까, 편의시설**  
학교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새내기가 궁금할 만한 장소는 '학생식당'일 것이다. 다채로운 메뉴가 있는 학생식당은 창의관 지하 1층에 위치한다. '교직원식당'과 매점 역시 창의관 지하 1층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 학생식당 음식보다 백반이 먹고 싶다면 교직원식당에 찾아가보자. 학생이 이용 가능한 시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니 해당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매점은 창의관 외에도 탐구관 지하 1층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상상빌리지 지하 1층에는 'CU' 편의점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창의관과 탐구관 매점은 방중 운영 시간이 단축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것에 비해, 상상빌리지의 CU 편의점은 학기와 방학의 운영시간이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동일하다. 단, 기숙사 입주생이 아닌 재학생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이 학교에 있지만 의약품은 구할 수 없다. 교내에서 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은



6

사진: 정성혁 기자

어디일까. 바로 '건강관리실'이다. 건강관리실은 상상관 1층 엘리베이터와 계단 사이에 위치한다. 건강관리실에서는 경미한 의료 서비스와 약품 제공이 가능하다. 권후관(건강관리실) 차장은 치료 방식에 대해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서 건강관리실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인 치료만을 행하고 내원해 보기를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관리실을 방문하거나, 강의를 듣기 위해 상상관에 가면 1층 한 부분에 위치한 '학생원스톱지원센터'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통합상담 ▲유실물 관리 ▲증명서 발급 ▲학생증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김양진(학생원스톱지원센터) 부센터장은 "새내기를 비롯해 재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문의처를 모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이 존재한다. 해질 무렵 상상관 12층의 옥상에 가면 노을과 어우러지는 한양도성의 경관을 감상할 수도 있고, 학술정보관 복도의 학습공간에서 교정을 내려다보며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기사를 열심히 읽은들 직접 가 봐서 공부하고, 즐기는 것만 못하다. 새내기의 알찬 대학생활을 응원하러, 많은 시설을 다니며 '뽕 뽑아보기' 바란다.

정현진 기자 glenntravel1081@gmail.com

## 한성에서 세계로, 국제교류프로그램

새내기 입학한 23학번 대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고등학교 내내 답답한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완화됐다. 이제 대면으로 대학의 다양한 활동을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길 차례다.

그중 대학생의 로망으로 꼽히는 교환학생 등의 국제교류프로그램을 눈여겨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본교의 대다수 국제교류프로그램의 대상은 1학년 새내기가 아니지만, 추후에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미리 찾아보고, 참가 자격을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본 기사를 통해 세상으로 무대를 넓히고 날개를 펼칠 본인의 미래를 꿈꿔보자.

국제교류프로그램은 ▲교환(방문)학생 ▲1+1(영어+전공) ▲학기 어학연수 ▲단기 어학연수 ▲디즈니 인턴십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앞선 5개의 프로그램은 본교와 협약을 맺은 해외 대학 등에 직접 방문해 진행되는 활동이고, 튜터링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온 유학생과 본교에서 함께하는 활동이다. 해외 파견 프로그램은 모두 첫 학기 기숙사 거주가 원칙이다.

'교환(방문)학생'은 교류대학의 수업을 수강하며 학점을 취득하고 현지 친구도 사귀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TOEFL of the Internet Based Test(이하 iBT)가 75, 학점이 3.5 이상인 학생이라면 '교환학생'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 '방문학생'은 대학별 iBT 기준과 학점 2.5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방문학생의 경우, TOEIC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학도 일부 존재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교환학생은 두 학기, 방문학생은 한 학기와 두 학기 중 선택할 수 있지만, 특정 대학의 경우 교환학생도 한 학기만 파견이 가능하다. 교환학생은 본교 등록금을 정상 납부하는 대신 교류대학의 수업료를 면제받는다. 이에 반해 방문학생은 본교 등록금을 10~20% 납부하고 교류대학마다 정해진 수업료를 납부한다.

'1+1(영어+전공)'은 첫 학기에는 교류대학에서 TOEFL이나 IELTS 등의 어학시험

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가하고, 두 번째 학기에는 교류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선 학점 2.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TOEIC 550 이상 취득 혹은 기타 어학 자격 충족 등도 만족해야 한다. 이외의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제교류지원팀에 문의하길 바란다.

학기 어학연수는 약 15주간 교류대학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언어 학습을 중점적으로 희망하는 학생이 적합하다. TOEIC 550 이상을 취득하거나 국제교류지원팀의 온라인 연수를 이수하고, 학점은 3.0 이상이어야 참가할 수 있다. 국제교류지원팀의 국제교류프로그램 소개를 살펴보면, 별도의 학점 기준이 기재돼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2022년도 2학기 와 2023년도 1학기 학기 어학연수 지원자격 공지사항에서는 학점 기준을 3.0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기 어학연수'는 약 3~5주간 교류대학에서 언어를 학습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TOEIC 500 및 학점

3.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기 어학연수 역시 2023년 1월과 2월에 걸쳐 파견되는 프로그램부터 학점 기준이 3.0으로 상향됐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2개 모두 최근 학점 기준이 변경됐기에, 지원자는 각별한 유의와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FSU(Florida State University,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방문학생 신분으로 약 6개월 미국 디즈니 월드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디즈니 인턴십'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이는 TOEIC 600 또는 iBT 61 이상 및 학점 3.0 이상인 학생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주 35시간을 근무하며 시간당 14달러를 지급받는다.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 총 11,200달러 가량(한화로 대략 1,400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참가비, 기숙사 비용, 채용 수수료가 그에 육박하는 만큼, 신청 시 고려가 필요하다.

외국인과 교류는 희망하지만, 유학이 부담스러운 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네 개의 활동도 있다. 한국인 재학생이 유학생에게 전공 및 교양 과목의 학습 방법을 지도하는

'학습 튜터링'과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새내기 유학생을 위해 트랙 기초 및 교양과목과 교내 프로그램 등의 학교생활을 가르쳐주는 '새내기 튜터링'이 존재한다. 학사경고를 받았거나 근접한 유학생에게 전공 및 교양 과목 학습 등을 지도하고 대학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주는 '유학생 학업능력향상 멘토링'도 있다. 한편, '글로벌 Conversation Partner'는 유학생이 한국인 재학생에게 우리말을 사용해 자국의 언어를 가르쳐줌으로써 재학생의 어학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다. 이 중 글로벌 Conversation Partner를 제외한 활동은 학점 3.0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여러 제약이 많았던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자유롭게 꿈을 찾고 실현할 수 있다. 비교적 다양한 세상을 접하며 식견을 넓히고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본교의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회로 진출하기 전,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자.

송성욱 기자 sw911@hansung.ac.kr

# 몰라도 괜찮지만, 알면 달라지는 한성의 보배

## 오늘 뭐 먹지? 한성대 '맛성비' 한 끼 대방출!

본교에 입학한 새내기에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먹고 즐기는 것. 끼니를 거르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잘 챙겨 먹어 야만 길다면 긴 대학 생활을 건강히 보낼 수 있다. 창의관 학생식당과 상상관 케이크친 한상 등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매년 같은 장소에만 갈 수 없는 노릇. 그래서 준비했다. 기자가 2년간의 대학 생활 중 방문했던 맛집 중 '가성비'까지 갖춘 장소를 소개해보겠다. 두둑하지 않은 지갑 사정 탓에 선택의 폭이 좁은 새내기를 위함이니 주목하자. 검색창에 '한성대학교 맛집'을 검색하기 전, 다음 기사를 먼저 일독하는 것은 어떨까.

### 중요한 것은 줄어들이지 않는 양, 프리스타일

해야 할 공부는 많지만, 시간은 부족한 시험 기간. 결국 잠을 줄이다 보니 '카페인 수혈'이 시급하다. 이렇듯 몸이 축축 처지는 날, '프리스타일'에 들러보자. 학교 정문에서 약 300m 떨어져 있으나, 재개발 이후 통로가 막혀 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프리스타일의 장점은 역시 음료의 양이다. 오랫동안 많은 학생이 이곳을 찾고 있는 이유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Tall 사이즈(약 410mL)는 2천 원, Venti(약 650mL) 사이즈는 3천 원이다. 심지어 아메리카노와 네 종류의 라떼는 테이크아웃일 경우 천 원 할인된 가격이라는 점이 주목하자. 추가로 모든 음료는 Tall 사이즈 금액에 3천 원만 추가하면 1L라는 거대한 양을 맛볼 수 있다. 카페인을 먹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에이드 ▲라떼 ▲차 ▲셰이크 ▲프라페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맛있고 가격 부담도 적은 대용량 음료가 생각나는 날, 들러보길 추천한다.

### 상다리 부러지는 집밥, 운봉손칼국수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 보면 종종 생각나는 집밥. 집에서 먹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생각날 때, 정문을 따라 600m가량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운봉손칼국수'에 가보자. 가게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 칼국수도 판매하지만, 기자가 추천하는 메뉴는 '보쌈정식'과 '제육볶음정식'이다. 정식을 주문하면 각각 보쌈과 제육볶음을 먹을 수 있고, 동시에 밥과 된장찌개, 여러 밑반찬까지 맛볼 수 있다. 부드러운 보쌈에는 절임배추와 보쌈김치가 달면서 매콤한 제육볶음에는 상추가 함께 나오니 입 안 가득 한 씹을 싸 먹어보자. 2천 원만 추가한다면 곱빼기로 고기를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다. 두 정식 모두 각각 1만 원인데, 학식과 비교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식의 구성을 보면 그러한 생각이 싹 사라질 정도다. 정겨운 한 상을 원한다면 꼭 가보길 권한다.

### 육지에서 찾은 바다의 맛, 활어의유혹

정갈한 초밥으로 깔끔하게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싶은 날, 한성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100여m 떨어진 '활어의유혹'에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오후 4시 이후 영업을 시작해 저녁 식사로 제격이다. 이곳에는 회를 비롯한 해산물 요리가 다양하게 있지

만, 메뉴판에서 기자의 눈을 사로잡은 음식은 초밥이다. 12개의 초밥으로 구성된 '모듬초밥'은 1만 원, 15개인 '특모듬초밥'은 1만 2천 원이다. 초밥의 개수를 고려해 보면, 모듬초밥은 개당 약 830원, 특모듬초밥은 800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밥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초밥 위에는 달걀, 유부, 숙회 등이 다채롭게 올라가 있어 두툽한 회가 곁들여진 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혹시나 뜨끈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7천 원을 더해 '뚝배기 오뎅탕'까지 추가해보자. 더욱 풍성한 한 끼가 될 것이다. 싱싱한 회와 초밥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날, 방문해보길 바란다.

### 쫄깃함과 부드러움의 공존, 종로곱창

내장 특유의 냄새와 질긴 식감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는 곱창. 혹시나 곱창을 먹지 않더라도 한성대학교 학생이라면 꼭 방문해보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성북구 맛집으로도 유명한 '종로곱창'은 한성대입구역 1번 출구를 따라 100여m를 걷다 보면 찾을 수 있다. 대표 메뉴는 '아재곱창'이다. 1인분 가격은 1만 2천 원으로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음식의 양이 상당하다. 성인 두 명이 2인분을 부족함 없이 먹을 정도였다. 곱창의 색은 새빨갭지만, 신라면조차 맵게 느끼는 기자도 전혀 맵지 않았다. 식감 또한 부드러워 곱창을 처음 맛보거나 불호인 이들도 도전해볼 만하다. 마무리로 '아재볶음밥'을 빠뜨리면 서운하다. 2천 원으로 배부르게 식사를 마칠 수 있다. 혹시나 맛의 변주를 주고 싶다면 '막창구이' 또한 시켜보자. 소금과 양념, 두 가지 맛이 있는데 곱창보다 조금 더 쫄깃한 식감을 잘 느낄 수 있다. 참고로 '철판달갈비'와 '빼없는담발'도 메뉴에 있으니 기호에 따라 주문하면 된다. 부드러운 곱창과 쫄깃한 막창이 생각나는 날을 위해 잊지 말고 기억하자.

### 도톰한 고기로 배에 기름칠, 방목

수업이 끝난 후 잘 구워진 돼지고기와 소주 한잔이 생각나는 저녁. 두툽한 고기가 있는 '방목'으로 향하자. 방목은 총 3개의 지점이 있는데, 1호점과 2호점에서 돼지고기를 판매한다. 한성대입구를 기준으로 각각 2번 출구에서 100m, 1번 출구에서 400m가량 걸어가면 된다. 한편, 3호점은 '술목'은 주점이니 참고해야 한다. 1호점은 ▲껌데기 ▲목살 ▲삼겹살, 2호점은 ▲가브리살 ▲껌데기 ▲삼겹살 ▲항정살을 판매하니 본인의 취향에 따라 찾아가면 된다. 노릇노릇 구워진 고기 위에 방목 특제 와사비 및 장아찌와 적당한 양의 와사비를 얹어 먹어보자. 장아찌의 단맛, 코골이 쪼개지는 와사비, 육즙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같이 나오는 젓갈에 고기를 찍어 먹는 것도 별미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의 사이드 메뉴까지 추가한다면 더욱 든든한 저녁 시간을 보내리라 장담한다. 종종 제공되는 방목의 서비스 음식을 기대하는 것도 좋겠다. 왓지떨린 분위기에서 고기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방목이 제격이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PLAN A : 기숙사에 입주한다

1교시에 늦지 않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여 '지옥철'을 탈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켜 원룸을 둘러보니, 약 40만 원에 육박하는 월세방의 시세를 확인하고는 그만 마음을 접는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본교는 3개의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이미 어떤 새내기는 통학 시간을 줄이고, 주거비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기숙사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을 수 있다. 그들을 위해 기숙사에 1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 기자가 본교 기숙사를 낱알이 파헤쳐 주겠다. 본교 기숙사는 남녀 공용인 상상빌리지, 남학생 전용인 삼선학사, 여학생 전용인 우촌학사가 있다. 상상빌리지 '정규모집'을 통해 가장 먼저 기숙사 입주생(이하 기숙사생)을 선발하고, 그 이후 삼선학사와 우촌학사가 기숙사생을 모집한다. 선발 방법은 기숙사별로 상이하니, 본 기사를 정독하길 바란다. 상상빌리지의 정규모집은 매년 초에 이뤄지며, 학기, 6개월, 1년으로 입주 기간을 구분해 모집한다. 본교 정식

신입학 모집에 합격한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정규모집 이후에 진행되는 '정시모집'도 존재한다. 정규모집과 정시모집 모두 특별모집과 일반모집으로 기준을 나눠 선발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모집과 특별모집 대상자 및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일반모집을 통해 기숙사생을 선발한다. 일반모집의 선발은 계약기간 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1:2.3순위가 정해져 이뤄진다. 1순위 선발 이후, 모집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2순위로 그다음 3순위로 순차적 선발이 진행된다. 만약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했다면, 1순위부터 무작위로 선발한다. 삼선학사와 우촌학사는 학기와 방학 단위로 기숙사생을 모집하며, 거주지 기준만을 적용해 선발한다. 한편, 모든 기숙사는 수용 인원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숙사생을 모집할 수 있으니, 기숙사 입주에 관심이 있다면 학기 중에도 한성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를 상시 확인해보자.

2019년에 개관한 상상빌리지는 3개 기숙사 중 가장 신축 건물이다. 지하 2개 층, 지상 7개 층으로 이뤄진 상상빌리지는 다양한 공간이 완비돼 있다. 지하 2층에는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 체육공간이 자리한다. 여러 휴게 공간은 지하 2층과 지하 1층에 걸쳐 분포하고, 지하 1층에는 'CU' 편의점, 세탁실, 취사실 등의 편의시설과 학습 공간이 존재한다. 1층에는 무인택배실과 행정실이 자리하고, 1층부터 3층까지는 남자 방, 4층부터 7층까지는 여자 방이 위치한다. 방은 모두 2인실이다. 상상빌리지 2인실의 크기는 5.69평(18.81㎡)이다. 사생활 내부에는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침대, 책상, 옷장 등이 구비돼 있으며, 화장실이 방마다 자리한다. 학외에 위치한 삼선학사는 상상빌리지에 비해 건립 연도가 오래됐으나, 두 차례의 리모델링을 거쳐 이용 환경이 개선됐다. 삼선학사는 지하 1개 층, 지상 3개 층으로 구성돼 있고, 기숙사생의 주거 공간은 1층부터 3층까지다. 2층은 방마다 화장실이 있지만 1층과 3층은 방 내

부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과 샤워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각각 1대씩 1층, 3층에 배치돼 있다. 삼선학사는 사생활의 크기와 구조가 다양하다. 방은 2인실, 3인실, 4인실로 나누어 있고, 각 방의 크기는 3.63평(12㎡), 6.11평(20.21㎡), 8.96평(29.61㎡)이다. 방 내부에는 한 명당 책상, 침대, 옷장 등이 하나씩 배정돼 있다. 베란다는 2층에 자리 잡은 사생활에만 존재한다. 우촌학사는 3개의 기숙사 중 한성대입구역과 가장 가깝다. 학교 정문에서 걸어 나와, 삼선SK뷰아파트 우측 길로 들어가 200m 정도 걸으면, 우촌학사가 보인다. 사생활을 제외한 내부는 1층 휴게실, 2층 TV가 설치된 휴게실, 3층 세탁실, 4층 취사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4층에 구비된 취사실은 임시 취사실로, 이번 방학 중으로 1층 휴게실 공간 일부를 활용해 취사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촌학사는 4인실로 6.76평(22.36㎡)이다. 방마다 1층은 책상과 옷장, 2층은 침대로 이뤄진 '병거형' 침대가 4개씩 배정된다. 더해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시설이 구비돼 있다.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숙사보다 자취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르기에 부딪힐 수 있다. 그렇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서서히 변화하기도 한다. 고민을 얘기하고, 공부도 함께하며 본인과 룸메이트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숙사에 입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상상빌리지(학내)



▲성북구 삼선교로10바길 38 삼선학사



▲성북구 삼선교로18길 12-15 우촌학사

장현진 기자 glentravel1081@gmail.com

# 한성을 나아가게 할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 한성대신문사에서 제54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우대

### 주요 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권택
- 인터뷰 및 사진 촬영
- 레이아웃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평가회의

### 지원방법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 활동지원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일간지 및 주간지 제공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 모집기간

3월 5일(일) 23시 59분까지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공지사항 바로가기

